IFAWPCA 한국측신임이사

박한상 갑을건설 대표이사

"우리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지원에 일조할 터"

"올해 해외건설수주액 30%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건설업체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박한상 갑을건설 대표이사가 제36차 IFAWPCA(아시아·서태평양건설협회국제연합회) 호주대회에서 한국측 신임이사로 선임되었다. IFAWPCA는 한국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ASEAN 주요 국가와 일본, 인도, 대만, 홍콩, 호주, 뉴질랜드,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가 가입되어 있는 아시아·서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건설업관련 민간국제협력기구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4년과 1975년, 그리고 1996년에 5차, 14차, 28차 등 세 차례에 걸쳐 IFAWPCA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건설산업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박 이사는 "해외건설경기가 매우 호황인 시점에서 IFAWPCA 한국측 이사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아시아·서태평양 국가와 지역간의 긴밀한 교류 및 국제친선과 협력 구현을 통해 우리 건설업의 국제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특히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해외 주요 건설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사 발주는 2016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리 기업도 아시아 지역 진출 증대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IFAWPCA 한국측 이사로서 역내 회원국 이사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동남아시아 및 인도 등의 지역 진출 지원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특히 해외건설 경기는 호황을 맞고 있지만 국내 건설 경기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다수 중견 및 중소건설업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의 효율적인 해외진출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개회식에 하루 앞선 지난 달 7일 열린 1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측 이사로서 첫 공식 임무를 수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회의제를 선정하고 지난 2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됐던 32차 중간이사회의 의사록을 승인했다. 특히 스리랑카건설협회와 말레이시아건설협회는 몰디브건설산업협회(MACI), 베트남건설협회(VCA)의 회원 가입을 각각 제안했으며 중국건설협회(CHINCA)의 회원 가입건을 함께 논의했다.

박 이사가 이번 호주대회에 참석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안건은 최종환 삼환기업회장의 기부금으로 지난 1981년 제정된 'IFAWPCA-Choi 현장근로자상' 후보자 심사. 박 이사는 "'IFAWPCA-Choi 현장근로자상'을 통해 우수한 시공물을 건설한 업체와 우수한 현장근로자를 선정, 포상을 함으로써 역내 지역국가의 건설기술 개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건설업을 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 전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IFAWPCA 상설사무국 웹사이트의 기능 개선을 통해 회원국의 건설 제도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의 입찰가이드라인, 공사정보 및 인력정보 등이 총망라된 건설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또, APEC, ASEAN, ADB, WB, ILO, FIDIC 등 국제기구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IFAWPCA 회원국 역내 국가의 차관공사 개선 및 입찰상의 문제점 해결에 적극 나설 포부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경 · 기자 · khk@cerik.re.kr